

인터넷 중독 상담 폭주 하는데 광주 상담원은 단 1명 뿐이고...

광주 상담센터, 방학 기간 月 150여건 처리... 상담자도 큰 불편

“날마다 컴퓨터에 매달려다시피 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90만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음란물을 복제한 뒤 판매해서 번 돈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빠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상담에 오는 고교생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상담 신청자는 광주시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하소연했다.

방학기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를 찾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단 한 명뿐인 실정이다.

29일 광주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소장 양경숙)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는 1천441건(학교파견 집단상담 제외)으로 2007년(752건)에 비해 91.6%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지난해 8월과 12월이 140~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담 사례를 대상으로 보면 ▲초등학생 287건 ▲중학생 199건 ▲고교생 515건 ▲대학생 100건 ▲일반 성인 94건 ▲부모 상담 237건 ▲기타 9건으로 초·중·고교생의 상담 건수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 집단 상담을 나눈 사례도 550건이나 됐다.

인터넷중독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생을 제외한 성인들의 상담 건수도 94건(6.5%)으로 2007년(3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문을 연 광주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는 현재 소장 겸 상담원인 양 소장 혼자서 전화 및 면접상담과 학교파견 집단상담 등 모든 상담을 도맡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 전화가 통화중인 경우가 많고, 면접 상담을 위해선 전화예약을 해야 하는 등 상담자들의 불편도 크다.

양 소장은 “인터넷 중독은 단순히 중독자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

족 모두의 관심과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이형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성매매나 절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올들어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광주시로 이관됐다”며 “인력 보강은 적어도 1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선문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문(48)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지하철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수사기록과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서 위·변조된 실적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선대 리더 장학생’ 설명회

29일 조선대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조선대 리더(CU Leader) 장학생’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비면제와 해외연수 특전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CU장학생을 지역 우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전호중 총장의 인사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친환경 농산물 ‘부실 인증’ 팀장 징역 6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부실 인증을 하고도 거액의 심사비용을 챙긴 광주 모 사립대학교 인증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

판사는 29일 영터리 철차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진도(4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광주 모 사립대의 산하학력단 친환경농산물연구센터 인증팀장인 진씨는 2006년 8월 11개 작목반에 대해 생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하지도 않고 농약과 농산물 인증결과를 대행하고도 잔류농약 분석비 1천500여만원을 여수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왜? 광주 서부경찰 비리 행위 많다

신청사 이전 후 광주서부경찰 직원들의 각종 비리 행위가 불통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 사형선 오라실 업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물론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 못하고 또 다시 각종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형선 오라실과 안마시술소, 유혹주점 등이 밀집돼 있는 신 도심(삼우지구)에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업주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품수수·음주사고 징계 전입자 상당수 오라실·유혹가 밀집 신도심 관할도 한 몫

광주지역에서 유독 서부경찰 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잦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광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에 따르면 우선 음주사고·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서부경찰로 전입해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부경찰 직원 수는 478명. 이 중 신청사 이전(2006년 12월 5일) 이후 서부경찰로 전보 조치된 직원 수는 143명이다. 이들 가운데 징계로 전보된 직원이 10여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기존 직원들과 유화

경찰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사형선 오라실이 113곳(지난해 단속 실적 기준), 유혹주점이 276곳, 안마시술소가 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부경찰 직원 비리 중 ▲음주운전 적발자 금품수수(2009년 1월) ▲성인 오라실 업무 금품수수(2009년 1월) ▲현직 경찰관이 낀 수역 원대 휘당사(2008년 6월) ▲경찰 성인오라실 비호(2007년 11월) 등 상당수는 전입 직원 또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일어난 비리였다.

서부경찰은 신청사 이전 후 직원 비리와 돌발 사건이 잇따르자 청사의 ‘지세(地勢)’를 탓하며 청사 담장에 대나무를 심기까지 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비리 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서 이미지도 훼손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715) 김종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광주·전남 ‘실종사건’ 수사 어떻게

15년간 6명 행방 못찾아 경찰, 전담반까지 편성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범인 검거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모두 6명. 지난 2006년 8월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살던 송모(여·당시 27세)씨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북부경찰은 송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거남인 박모(당시 30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폈으나 박씨는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통강 주변에서 헬기까지 동원, 수색 작업을 했으나 루체를 찾진 못했다.

1995년~2001년 사이 전남지역에선 여자어린이 4명이 실종됐다. 박상미(당시 6세)양은 1995년 광주에서 나주로 야영을 갔다 실종됐다. 식목일이었던 1997년 4월 5일, 영암군 금정면 월령리 할머니 집에서 낫잡을 자던 변유정(당시 3세)양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2000년 6월 15일엔 강진 통초교 1학년이던 김성주(당시 6세)양이 수업 중 사라졌다. 실종 직후 루체를 차량은 서구 치평동 무각사 주차장에 발견됐다. 차 안에 피자가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무각사와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광산구 황

2000년 6월 15일엔 강진 통초교 1학년이던 김성주(당시 6세)양이 수업 중 사라졌다. 실종 직후 루체를 차량은 서구 치평동 무각사 주차장에 발견됐다. 차 안에 피자가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무각사와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광산구 황

2007년 5월 28일엔 류모(당시 26세)씨가 실종됐다. 실종 직후 루체를 차량은 서구 치평동 무각사 주차장에 발견됐다. 차 안에 피자가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무각사와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광산구 황

실 맞아 고향에 온 절도범 ‘덜미’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20대 절도범이 실을 맞아 고향 집에 찾다가 잠복중이던 형사들에게 걸렸다.

○영광경찰은 29일 농촌 지역의 빈집을 골라 삼승적으로 물품을 훔친 이모(25)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영광, 진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쌀과 밀가루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년 전 집을 나온 이씨는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물건을 팔아 수익을 해결해왔는데, 경찰은 이씨가 최근 절도 행각을 멈춘 뒤 고향 집에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잠복 끝에 이씨를 걸거.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광주원광신협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01 특례신용보증서대출 조건

- 상환기간 : 1~5년 이내
- 대출이율 : 7.3%~매 분기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 2,000만원 이내

02 대출가능하선분

- 사업자등록 후 6개월(1,0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제외대상 : 부동산업이나 사치형택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 기업

03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신협 기본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주력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인 경우 생략)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 1,000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2009년 제테크! 신탁 비과세예금으로 시작하세요!"

신탁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신탁 비과세 혜택

2009년 1월 1일부터 신탁의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익률 높은 신탁비과세 예적금

은행 예적금의 이자는 15.4%의 세금을 떼지만 신탁 예적금은 1~4%만 부과합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신탁 예적금은 신탁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장기적금 원리금 할인 6.0%

합계하면 행복한 은행 **광주원광신협**

본점 227-4474 [동부경찰서 옆]

금호지점 383-4474 [금호마을우점]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속원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전화번호: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석동	151/213	595400원	3953800원	2층/2차/부속/관리비
학동	194/220	1194500원	6941800원	4층/사립/관리비
공동	48/233	8928500원	4998000원	별관/원시/사립/관리비
오치동	50/52	1961200원	90300원	상/사립/관리비
안산동	362/294	4194000원	2194000원	금/부/관리비/사립
신안동	110/257	6981000원	395000원	4층/사립
광명사면	612/713	1928600원	1928600원	주/우/사립
정음동	98/43	68000원	47600원	커먼/다/부속/관리비

▶주택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영광동	200/44	88400원	495000원	도/로/2차/부속/관리비
호정동	38/38	98000원	68600원	중/부속/관리비
본촌동	88/35	88200원	61700원	상/사립/관리비
중동	42/48	95200원	68600원	중/부속/관리비
진월동	40/46	81800원	45800원	구/부/관리비
우산동	48/40	1922000원	68400원	우/우/사립/관리비
문흥동	54/60	1957200원	93600원	우/우/사립/관리비
오치동	112/45	2929800원	1928600원	한/관리비
영광동	125/26	37500원	24000원	신/오/관리비
월동	33/40	996400원	70000원	유/우/사립/관리비
계림동	95/86	1957300원	75000원	계/부/관리비
내곡동	200/54	485000원	272000원	본/사립/관리비
중동	48/53	1949200원	687500원	북/부속/관리비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44.9	2억 1천 1백 200만	무등스마트빌2층	
곡성동	20.4	2800만	1980만	대형/관리비/관리비
공평동	57.1	1950000원	896000원	대/부/관리비/1층
원정동	14.8	4000만	2240만	상/부/관리비/1층
관정동	8.7	2700만	1890만	기/부/관리비/1층
내곡동	18	2400만	1680만	실/부/관리비/1층
회현동	17.8	3000만	2100만	대/부/관리비/2층

▶다가구(월급)/숙박시설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안동	80/21	3971400원	2980000원	3층/12차/부속/관리비
신촌동	63/05	3922200원	2982800원	3층/12차/부속/관리비
지산동	85/18	3925300원	2927700원	3층/18차/부속/관리비
학동	82/33	4954000원	3947000원	3층/18차/부속/관리비
우산동	74/89	2946000원	1984800원	3층/15차/부속/관리비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구동	9.2	4300만	1830만	구/동/스/관리비/10층
지평동	47.4	3950000원	2952000원	호/부/관리비/14층
화정동	12.2	5500만	2464만	금/중/관리비/12층
차정동	24.1	1950000원	672000원	그/부/관리비/3층
월동	13.7	8600만	3090만	동/상/2층

▶아파트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월동	월동	15층	34	1950000원	735000원	
우산동	대/관/부/관리비	1층	35	1950000원	1950000원	
금호동	한/관	14층	24	900000원	630000원	
안산동	한/관	2층	24	600000원	420000원	
안산동	한/관	20층	33	800000원	560000원	
소촌동	이/스/부/관리비	12층	36	1940000원	980000원	
방두동	드/미/차	7층	29	680000원	476000원	
주월동	한/미/차	3층	38	2970000원	2970000원	
매월동	이/스/부/관리비	1층	35	1940000원	980000원	
문흥동	금/호	5층	42	1976000원	1923200원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관정동	전	528	3665만	2565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관정동	양	2283	6868만	3850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관정동	전	887	2053만	1440만	신/부/관리비/관리비
모곡동	대지	179	4618만	3323만	제/부/관리비/관리비
월동	전	1485	3460만	2420만	하/관/부/관리비/관리비
지석동	전	177	1912700원	1912700원	대/중/관리비/관리비
영광동	양	1086	1800만	1280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관정동	전	1033	1945430원	800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내곡동	대	473	1437만	1010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곡동	전	748	2230만	1580만	관/관/부/관리비/관리비

▶공장

소재지	대/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본동	634/185	11950800원	5915800원	아/부/관리비/관리비/관리비
회현동	1247/641	7976600원	3917000원	관/관/부/관리비/관리비
월동	1565/889	23921000원	13919000원	관/관/부/관리비/관리비
당곡동	1292/706	12924000원	5948300원	금/부/관리비/관리비
월동	503/412	9283000원	6977600원	관/관/부/관리비/관리비

이용동 11/18/2125 매가14억7000만 교통편리,대리점 병행,오양원지점